

교구의 여러분

대주교 마에다 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조치 (제 4 차)

+ 주님의 평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오사카교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1. 오사카 교구에서 공개미사는 4월 8일(수)까지 계속 중단하고, 4월 9일(목) 성 목요일 · 주의 만찬의 밤 미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시 상황이 크게 악화 될 시, 다시 연기를 통지합니다.
2. 4월 5일(일) 성지주일(수난주일)은 공개미사는 아직 재개하지 않지만, 본당사목 담당사제는 가능하다면 복사들, 혹은 몇 명의 신자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본당신자를 위한 성지가지를 축복하십시오. 가지는 나중에 신자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3. 4월 8일(수)에 예정되어 있던 성유축성 미사와 금경축 · 은경축 등의 축하식은 5월 20일 (수) 11시로 연기합니다. 이날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던 사제 평의회는 당일 9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4. 성삼일 예절에 관해서는 3월 19일 바티칸 전례성사 성성의 교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경하십시오.
 - a) 성 목요일 : 임의로 지정되어있던 세족례는 생략합니다. 주님의 만찬 저녁미사와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수난감실로 향하는 성체행렬은 생략하고, 성체는 성전 감실에 안치합니다.
 - b) 성 금요일 : 보편지향기도에 다음의 지향을 추가합니다. (천주교 중앙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받는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 주시기를 청합니다.

(잠시 침묵)

희망의 원천이신 하느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약과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을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불안과 혼란에 휩싸인 이 세상이, 당신을 통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c) 부활 성야 축제 “빛의 예식”은 불의 축복을 빼고, 부활의 촛불을 밝히고, 행렬을 생략하고 부활 찬가를 시작합니다. 이어 “말씀의 전례”를 실시합니다.

5. 세례식을 부활성야미사 중에 실시하는 본당은, 본당 사목 책임자에게 일임합니다.

6. 기타주의 사항

a)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는無理하지 마시고, 미사 참여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령자나 지병 등으로 미사에 참여 할 수 없는 경우, 미사에 참여할 의무를 관면합니다.

b) 사제는 미사 전에 충분히 손을 씻고, 청결에 힘쓰십시오. 또한 사제와 성체분배 봉사자들은 성체를 분배하기 전에, 손을 씻거나 소독하십시오.

c) 미사를 집전 할 사제는, 열이 있고 기침이 나오는 등의 감기 증상이 있으면, 미사를 집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일미사를 집전할 사제가 없으면, 미사가 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신자들은 주일미사참여 의무에서 관면됩니다.

d) 미사 전· 후 나 미사 중, 가능한 성당의 창문을 열어 환기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e) 성당 안에서는 신자들 사이에 가급적 멀리 앉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장례를 전후의 간격을 넓히고, 장례들에서도 서로 넓은 간격으로 앉아주십시오.

f) 미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독서자와 선창자, 복사들도 마스크를 착용해도 괜찮습니다.

g) 당분간 미사 안에서 노래는 부르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화답하는 부분에서는 선창자가 마이크로 대답하고, 회중은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h)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의 봉헌은 당분간 없습니다. 미리 제단 근처에 준비하십시오.

i) 성당과 신자회관 등의 입구에는 손 소독용 알코올을 비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j) 당분간 성당 입구에 설치되어있는 성수대에 성수를 넣지 않고, 성수 사용금지 안내문을 붙여주십시오. 성수가 바이러스를 매개체가 아닌, 많은 이들의 손가락을 통해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이 알리를 외국인 신자를 포함하여 모든 신자들이 알 수 있도록 주위에 전해주십시오. 또한, 이 소식의 주요 외국어 판을 순차적으로 교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므로 참고하십시오.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